

109 학년 1 학기 유라시아 재단 국제 세미나

「아시아공동체: 동아시아학의 구축과 변모 시리즈 강좌(11)」

주제: 대일 산업 협력 현황과 발전 - 일본 동해 지역을 중심으로

린관루(林冠汝) 교수
(진리대학교 국제무역학과 교수)

제 11 회 유라시아 재단 국제 세미나에서 대만경제연구원에서 10 여년간 근무하시고 현재 진리대학교 국제무역학과의 학과장으로 계신 린관루(林冠汝) 교수는 대만과 일본의 산업 협력 현황과 발전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대만의 세계 경제에서의 위상과 경제발전 특색과 과제

대만의 인구는 세계 54 위, 국토면적은 세계 136 위, 인구밀도는 세계 2 위이다. 비록 작은 경제 규모를 가지고 있지만 많은 기적을 만들어 냈다. 2019 년 세계 19 위의 무역 국가가 되었고 외환보유고는 전세계 3 위를 차지한다. 2020 스위스 로잔경영대학(IMD)의 세계경쟁력연감(WCY)에서 대만의 국가경쟁력은 11 위로 향상되었으며 R&D 인력은 세계 2 위를 차지하고 있다.

먼저 대만 경제 발전의 특징과 과제는 다음과 같다.

(1) 대만의 경제 기반은 비록 작지만 총수출입 무역량은 세계 20 위에 달하며 IC 및 반도체 관련 제품은 세계 1 위를 차지하고 있다.

(2) 대만은 중소기업이 주도하는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다.

(3) 대만 GDP 의 주요 원천은 3 차 산업(서비스산업)이고 2 차 산업은 제조업이 지배적이다.

(4) 대만은 대외 무역 의존도가 높고 세계 경기의 영향을 쉽게 받는다.

(5) 대만의 대외 무역 및 투자는 중국, 동남아시아, 일본과 같은 아시아 시장에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대만은 세계 3 대 경제기구에 가입하고 있지 않다.

(6) 대만은 무역장벽을 줄이기 위해 세계경제기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다른 국가와 경제 협력 협정을 체결해야 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대만이 세계경제기구에 적극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이유이다.

(1) 외부요인 : 2000년 이후 WTO를 통한 다자간 및 다국가 간 무역 협상은 시간이 많이 걸리고 협상이 쉽지 않아 점차 쇠퇴하고 있다.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 협상 방식이 대세이다.

(2) 내부적 요인: 대만은 세계 3 대 경제기구에 가입하지 못한 상태이고 대만의 경제와 무역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대만과 다른 국가 간의 무역

장벽을 제거하고 줄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FTA(자유무역협정)와 EPA(경제동반자협정)에 참여해야 한다.

2. 글로벌 경제 통합 속에서 대만의 운영 모델

대만은 "Chinese Taipei"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여 1991 년 중국, 홍콩과 함께 APEC 회원국에 가입했다. 2002 년에 "대만, 평후, 진먼 및 마주 지역 개별 관세 영역"이라는 이름하에 세계무역기구(WTO)에 성공적으로 가입했다. 중미 5 개국과 무역협정을 체결했다. 아프리카 스와질란드(Swaziland)의 우수한 지리적 위치를 이용하여 여러 국가 간 FTA 관세우대협정을 체결하여 제 3 세계 시장을 개발하였다. 2008 년 이후 중국, 일본, 미국과 각각 산업협력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고, 싱가포르 및 뉴질랜드와 EPA 를 체결했다. 위와 같은 정책에 따라 대만의 2017 년 경제 성장률은 하락했지만 실업률은 2002 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였다.

3. 대만과 일본간의 산업 협력 추진 배경과 현황

(1) 일본의 산업 협력 추진 배경

① 3.11 지진 이후 대만과 일본 정부는 공동으로 「대일산업협력장려정책」을 추진했다.

② 일본 국내시장의 내수 수요가 감소하고 각 현의 기업들이 해외투자나 판매 채널 확대 등의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

③ 일본의 국제화 경험 부족은 대만 기업의 국제화 전략과 국제화의 경험을 빌어서 일본 기업의 국제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④ 대만은 일본어를 구사하는 인재가 많고, 일본에 대한 신뢰도와 친화력이 높아 일본 기업이 안심하고 협력할 수 있다.

(2) 대만의 산업 협력 추진 배경

① 대만은 일본의 무역 적자국가이며 장기적으로 기술과 핵심부품을 일본에 의존하고 있다.

② 일본과의 협력은 대만의 산업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③ 대만과 일본의 산업협력 성공 사례가 많으며 이는 유럽과 미국 기업보다 더욱 효과적이다.

④ 일본 3.11 지진 이후 대만과 일본의 교류가 크게 진전되었다.

⑤ 일본과의 협력은 대만이 해외지역과 협력 체결하는 방법 중 하나라고 할 있고 FTA 보다 쉽게 체결 가능하다.

대만과 일본의 산업협력정책과 관련 조치는 양국 정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대일산업협력촉진사무소(TJPO)를 설치하고 중국 또는 중국 이외의 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기업들을 연결하는 것이다. 현재 TJPO 는 미에, 와카야마, 아키타,

고치, 에히메, 가가와, 가고시마 등 7 개 지자체와 산업협력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시즈오카, 도야마, 오키나와현이 대만에 사무소를 설립했다. 현재 일본과 교류하는 현, 시 혹은 단체는 38 개에 달한다.

4. 일본 동해 지역에 있는 일본 기업들의 대일 산업 협력에 대한 견해

린관루 교수는 일본 기업의 최신 정보를 얻기 위해 일본 동해 지역의 기업과 설문조사 및 현장 인터뷰를 실시했다. 그 결과 대만과 협력 관계를 맺고 있는 기업은 30%에 불과하며 그 중 대부분이 제조업체이고, 대부분의 기업은 제품, 원자재, 부품, 기계를 대만에 판매하는 형태이고, 협력 관계를 맺고 있는 기업 중에 대만에 위탁생산기업과 위탁판매기업 형태 순으로 협력하고 있었다.

대만에 대한 투자환경 평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본기업에 대한 신뢰도와 친밀감에 대해 가장 높은 평가를 하였으며, 두 번째는 안정된 정치 및 치안, 세 번째는 일본어 구사가 가능한 다수의 인재, 네 번째는 다른 아시아 국가보다 우수한 투자 환경이었다. 일본 기업의 대만 기업과의 협력 의향 및 형태에 대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만중소기업과 협력할 수 있는 기회가 가장 많고, 제조업 유형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산학협력 관련 과제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로는 협력 파트너를 찾기가 쉽지 않고 국제화를 위한 인재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시급히 요청되는 협력 지원에 대한 설문 조사 결과에는 각 산업별 적합한 정보 제공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해외투자관련 인센티브 정책 및 우수한 언어를 갖춘 인재 제공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린관루 교수는 대만의 현재 가장 시급한 과제는 미국산 돼지(락토파민 함유) 수입 개방과 일본의 5 개 원자력 재해지역 제품 수입에 대한 문제라고 결론지었다. 또한 중국 본토는 대만이 중국의 일부라고 주장하고, 이러한 이유로 대만의 국제기구 가입을 극렬히 반대하거나 다른 국가 간의 FTA 와 EPA 를 체결을 방해하고 있다. 대만의 향후 발전 방향은 ‘대만-미국 FAT’ 또는 ‘대만-미국 BAT’ 방식으로 미국과의 협상이 필요하며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CPTPP) 등에 가입하는 것이다.

웹 사이트 : <https://Eurasia.pccu.edu.tw/faculty.php>

작성: 천위민(陳毓敏) 일본학과 부교수

번역: 장민자(張珉慈) 한국어문학과 석사과정

감수: 김선효(金善孝) 한국어문학과 부교수